



THE HERALD of Christian Science

informal translations from the publications of the Christian Science Publishing Society

하나님의 조정하는 법

God's Law of Adjustment

by Adam H. Dickey, *The Christian Science Journal*, January, 1916

사람은 하나님의 법으로 산다. 사람은 하나님의 법으로 창조되었고, 다스려지며, 지탱되고 통제된다. 법이란 힘에 의해 만들어지고 유지되는 규칙이며, 영구성과 안정성을 가지고 있고, 변하지도 않고 왜곡되지도 않으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註 1) 지속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법의 효율성은 전적으로 그것을 집행하는 힘에 기반을 둔다. 소위 법이란 것이 집행될 수 없다면, 그것은 법이 아니며 법과 무관하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창조주, 즉 유일한 입법자이시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註 2) 우주 안의 모든 권능, 활동, 이지, 생명은 하나님께 속하며 항상 그분이 주관하신다. 그분은 최고의 통치자이시며 자신의 권능을 다른 누구와도 나누어 가지지 않으신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악과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라."(註 3)고 말했다. 우리도 역시 바울과 같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악과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하였음을 안다. 그 이유는, 실존하는 모든 권능은 "빛"의 법의 편에 있으며, 이 생명의 법에 거스르는 것은 단지 관념일 뿐, 전혀 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자면, 하나님의 모든 법은 그 배후에 그것을 집행할 무한한 힘이 있지만, 소위 죄악과 사망의 법에는 토대가 없으며 그를 뒷받침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이 현존한다는 것, 그 법이 작동한다는 것을 깨닫고 선언할 때, 우리는 그 법 전체와 하나님의 권능을 동원하는 것이다. 우리는 진리, 즉 하나님의 진리를 선언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진리는 자신과 부조화스런 모든 것을 절멸, 말소, 제거하는 법 자체이다. 우리가 겪는 어떠한 부조화한 상황에 대하여 크리스천 사이언스에서 가르치는 대로 이 진리를 천명하고 적용했을 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한 것이며, 실존하는 것처럼 보이던 모든 형태의 오류의 현시를 파괴하기 위해 우리가 취해야 할 모든 조치를 취한 것이다. 오류란 하나님의 마음 안에 존재할 수 없는 것이지만, 사람의 생각에는 실존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것을 사람의 생각 안으로부터 몰아냈을 때, 우리는 그것이 발을 붙이고 있는 것처럼 위장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에서 몰아낸

For this translation in English and other translations in Korean, please see <http://translations.christianscience.com>

Translation © 2009 The Christian Science Publishing Society. This translation has been performed by Mother Church members in the Field and made available by agreement with The Christian Science Publishing Society. You may reproduce up to 50 print copies of this Article. You may not sell or reprint this Article in another publication without permission of CSPS. You may not post or embed this Article on other websites; instead please link to the Article on the CSPS website.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에게는 그것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된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어떤 상황이라도 그 각각에 일일이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법이 존재한다. 사람들의 생각에 떠올려진 어떠한 상황이나 조건도 이 무한한 법의 직접적인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이다.

법의 집행의 효과는 언제나 교정, 관리, 조화, 조정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난다. 무질서, 부조화한 것은 무엇이 되었던 그 자체의 법칙이 있을 수 없으며, '하나님의 조정의 법'을 통해 하나님의 직접적 통치 아래로 들어오게 된다. 우리에게는 이 법을 집행할 아무런 책임도 없다. 하나님 마음의 작용을 증가, 자극, 강화시키기 위해 우리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항상 존재하고 늘 작동하고 있으며, 우리로부터의 정당한 호소를 받았을 때에 어김없이 저절로 나타나고 명백해지기 때문이다. 우리가 할 일은 다만 이 법을 우리의 풀리지 않은 과제에 과학적으로 접촉시키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의무를 다한 것이다.

어떤 이는, "관념적으로 작용하는 하나님의 법이 어떻게 나의 물리적인 문제에 작용될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할지 모른다. 이는 문제가 물리적이 아니라 관념적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쉽게 이해된다. 우선 우리는 모든 것이 "마음"이며,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럼으로써 그 어긋난 물질적 감각을 우리의 생각에서 제거해야 한다.

"disease(질병)"라는 단어의 원래 정의는 "ease(편안함)"의 결여 - 즉 불편함, 불안, 고민, 동요, 성가심, 상처와 같은 것들이다. 크리스천 사이언스의 창시자인 Mary Baker Eddy 여사는 "질병이란 생각의 형상이 외부적 현상으로 드러난 것이다. 관념적인 상태가 물질적 상태가 된 것이다. 사람의 마음이 무엇이든 실질적 상태라고 굳게 믿는 모든 것이 몸에 반영된다."(註 4)고 말한다. 우리가 물질적 상태라고 간주하는 열, 추위, 굶주림, 빈곤과 같은 모든 형태의 부조화 역시 관념적인 것이어서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따라서 관념적인 하나님의 법이 어떻게 물리적 문제에 적용될 수 있는가를 쉽게 이해 할 수 있다. 실제로, 문제는 물리적이 아니라 순전히 관념적이며, 인간의 마음에 품고 있는 어떠한 생각의 직접적인 결과인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대양 한가운데서 아무런 도움도 받을 여지가 없이 역사지경에 처해 있다고 해도, 정당하게 호소한다면 그를 구출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법이 그곳에 있다. 당신은 이것을 믿을 수 없는가? 만일 그렇다면 당신은, 자신이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상황에 처할 수가 있다고 믿는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불타는 건물 안에 있다든지, 열차사고를 당했다든지, 사자 굴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물질적 상황을 당장에 조정함으로써 그를 온전히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법이 존재한다.

우리는 각각의 경우마다, 그 하나님이 법이 무엇이며, 그 법이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 알 필요가 없다. 무슨 이유로 어떻게 그 법이 작용하는지 알아보려고 시도하면 오히려 그 작용을 방해하고 실증을 저지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처한 곤경을 모를 것이다, 또는 무한한 지혜이신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는데 필요한 이지가 없을지 모른다는 등의 어리석은 생각으로 인해 우리 마음 속에 생기는 모든 공포를 즉시 우리의 사고영역 바깥으로 쫓아 낼 수 있다. "과학과 건강 附 성서의 열쇠" 62 쪽에서 Mrs. Eddy 는 "꽃봉오리와 꽃을 형성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백합을 옷 입히시듯 인간의 육신을 돌보실 것이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인간적 개념의 그릇된 법을 믿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썼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실 것인가, 언제나 그 혜택을 받게될 것인가를 알고 싶어한다. 그리고는 앞 뒤를 따져보고 난 후에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맡길 준비가 되어있는지 결정하고자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조정하는 법이 어디에 작용하는지를 살펴보자.

하나님은 조정을 받으실 필요가 없다. 조정을 해야 할 유일한 곳은 인간의 의식 안에 있다. 그러나 인간의 의식이 하나님의 법에 호소하지 않는 한, 즉 인간적 의지를 기꺼이 포기하고, 인간적 계획을 중지하며, 인간적 자부심과 야망과 허영을 제쳐놓고자 하고, 또 그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한, 조정의 법이 작용할 여지는 없는 것이다. 우리가 속수무책인 상황 안에서, 우리 스스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 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도와주십사 하고 간절히 구한다. 우리 자신의 계획, 우리 자신의 의견, 현 상황에서 무엇이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등에 대한 우리 자신의 생각을 포기할 준비가 되었을 때, 그리고 그 후에

오게 될 결과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지 않게 되었을 때, 그 때야 비로서 하나님의 법이 전체 상황을 장악하고 다스릴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 법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한다 하는 우리자신의 고정된 관념에 몰두하고 고집한다면 이 법이 우리를 위해 작용하리라는 기대는 할 수 없다. 우리는 사물에 대한 우리의 견해를 완전히 포기하고,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註 5)라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모든 경우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과 완전한 신뢰를 가진 상태에서 이렇게 한다면, 세상의 어떤 권능도, 조화롭지 못한 모든 상황들을 바로잡는 이 자연스럽고 정당하며 합법적인 조정을 막을 수 없다.

이 조정의 법은 보편적인 "사랑의 법"이므로, 모두에게 동등하게 축복을 내린다. 그것은 어느 누구로부터 무엇을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하지 않는다. 그것은 어떤 경우에도 스스로를 유보하지 않으며, 청원을 받고 인간적 의지가 포기된 즉시 작용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인간의 사고를 자아를 초월한 사랑(unselfed Love) 과 일치하게 하는 것은 그 무엇이 되었든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받는다."(註 6)고 Mrs. Eddy 는 말한다. 우리가 확신과 신뢰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조정하는 법의 결정에 맡길 수 있는 시점에 다다르게 되면, 그 법은 즉시 우리를 모든 개인적 책임감에서 풀어주고, 불안과 두려움을 제거해주며, 평화와 위안과 하나님의 감싸주는 보호에 대한 확신을 가져다준다.

우리가 기꺼이 모든 일을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조정의 법을 통해 통제하시도록 허락할 때에 더욱 더 만족스럽고 위안을 주는 평화와 즐거움이 확실하게 따르게 된다. 무한한 마음이신 하나님이 우주를 통치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모든 아이디어(피조물)들이 그 각각의 적합한 위치에 영존한다는 것, 하나님의 계획안에 실수가 자리 잡을 어떤 조건이나 경우가 생겨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 때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정당한 상태로 조정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에 대해 완전한 확신을 가지게 된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은 이미 각기 정당한 위치에 있는 것이고, 조정에 대한 방해, 또는 조정의 결여가 있을 수 없다. 부조화란 오직 깨이지 못한 인간적 인식에게만 있을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우주는 항상 완전히 조정된 상태에 있으며, 하나님의 모든 아이디어들은 완전한 조화 안에서 영원히 서로 같이 일한다.

우리가 사물에 대한 우리의 공포감과 불안감을 떨쳐 버리고, 기꺼이 신성한 마음이신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자 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註 7)는 것을 깨닫게 된다. 질병, 불편, 성가심, 두통거리 등의 모든 부조화는 실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지로 모두 한정된 인간의 마음이 믿고 있는 것들일 뿐이다. 우리의 생각이 옳고 상대방이 그르다고 생각될 때라도 우리의 견해를 기꺼이 포기하면, 우리의 한정된 의견을 포기함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기 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법이 즉시 작용하여 모든 것들을 정당하게 조정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우리가 억압 받고 있다거나 이용당하고 있다고 느낄 때는 저항하기를 포기하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종종 있지만, 만물을 조정하는 진리의 권능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충분하다면, 우리는 우리의 주장을 포기하고, 오류 없는 자신의 법대로 모든 것을 조정하는 무한한 지혜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기회에 대해 기쁘게 여겨야 할 것이다. 신성한 마음이신 하나님께는 실패 같은 것이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은 절대로 패배하지 않으시며,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오류를 이긴 승리에서 오는 혜택을 반드시 받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논쟁에 빠졌든지, 분쟁에 휩싸여 있다든지 등의 어떤 불편한 입장에 처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취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우리가 공격을 받고, 중상을 당하고, 오해를 받거나 확대 받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당한 식으로 갚으려고 노력해야 하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조정의 법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다. 난관에 대해 우리 스스로 결말을 보려고 노력하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종류의 어떤 경우에서도 이에 대항하여 싸워봐야 우리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다. 우리가 손수 나서서 적을 징벌하려 한다면 또는 우리 자신의 방법으로 곤경에서 벗어나고자 하면 우리는 오로지 자신의 인간적 약점을 보이는 것이다.

사업에서나 인간사의 어떤 일에서 해결 방법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우리가 한 쪽을 택하는 결정을 내려야 할 경우 그 선택에 대한 이의가 많다면, 그 결정이 올바른 것인지 아니면 오류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조정하는 법의 실증을 통해서만 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

문제이다. 때때로 인간의 지혜로는 어느 것이 정당한 결정인지 도저히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에 우리는 겸손한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조정의 법이 모든 것을 규제하고 다스린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 생각으로 최선으로 보이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 그 때 우리가 만약 잘못된 선택을 한다 하더라도, 크리스천 사이언스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실수를 계속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이며,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 길을 밟도록 종용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 권리가 있다. 우리가 우리에게 최선으로 보이는 것을 기꺼이 하고자 하는 시점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이 그 분의 불변의 법대로 모든 것을 조정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문제를 맡기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과제로부터 우리 자신을 완전히 들어내고 모든 책임감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고치시고 올바르게 다스리신다는 지식 안에서 안심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로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 하나님의 요구에 따르는 일을 하는 것뿐이다. 우리의 선의가 나쁘게 말해진다 해도 이에겐 아무런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이 한 행동에 대해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우리의 의무는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에 응했을 때 끝나며, 거기에 모든 과제를 그대로 남겨둘 수 있다. 얼마나 큰 위험부담이 걸려있든 무엇이 개입되어 있든 상관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의 작용을 방해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빼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는 싸움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였음이라. ... 너희는 전열을 가다듬고 서서 주의 구원을 보라." (註 8)는 예언자의 말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삶을 사는 동안 실수를 범하지 않고 인생을 마칠 수 있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우리는 수많은 실수를 저지를 수 있겠지만 그 모두로부터 이득을 본다. 우리는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됨에 따라 사물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우리는 어떤 문제에 대해 이전에 어떤 확고한 입장을 취했었다 하는 단순한 이유의 허영심때문에 그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전의 견해를 버리고, 어느 주제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대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한다.

크리스천 사이언스를 믿는 사람들은 때로 생각을 바꾼다는 소리를 듣는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을 바꾸시는 분이 항상 하나님이라면 그런 말을 들은들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만일 생각을 바꾸었다고 해서 사이언스를 믿는 사람이 더 낮은 정도의 크리스천 사이언스 신자가 되는 것인가? 만일 어떤 장군이 전투의 와중에서 지혜에 따라 전략을 바꾸었다고 해서 군을 이끌 자질이 덜 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미 정해진 계획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지가 너무 단호한 것은 오히려 오류를 저지를 수 있는 인간적 의지를 권좌에 두는 것과 마찬가지다. 크리스천 사이언스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가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가기 위해 무장과 장비를 갖춘, 언제나 개인적 견해나 의견을 포기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시던 마음'(註 9)을 자신들 안에도 모실 준비가 되어있고 기꺼이 그리 하고자 하는 병사들이다.

1. 히브리서 13:8, 2. 요한복음 1:3, 3. 로마서 8:2, 4. 과학과 건강 附 성서의 열쇠 p.411,
5. 누가복음 22:42, 6. 과학과 건강 p.192, 7. 로마서 8:28, 8. 역대기 하 20:15, 9. 빌립보서 2:5